koeln.polizei.nrw

POLIZEI
Nordrhein-Westfalen
Köln

bürgerorientiert · professionell · rechtsstaatlich

소매치기 예방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범죄를 행하기 어렵게 만드세요.

귀중품은 몸에 꼭 붙여 운반하세요. 소매치기범들은 밀치는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이때의 부주의를 이용합니다.

현금과 은행카드, 신분증은 따로따로 보관합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귀중품,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매치기들은 고도로 노련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절도 피해를 당한 상황을 아마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중이 운집한 곳에서는 손가방이나 크로스백 등은 꼭 잠그고 몸 앞으로 메거나 팔 아래에 꼭 끼워서 운반하세요.

사람들이 밀치는 혼잡한 상황에서는 배낭을 몸 앞으로 메십시오. 배낭의 바깥 주머니에 귀중품을 넣어두면 쉽게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피해시 알아 두어야 할 정보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보안코드, 계좌번호 및 은행번호, 휴대폰 관련 중요 번호: 전화카드 (SIM) 번호, IMEI 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 확인방법: *#06#), 원거리 차단 및 위치 추적을 위한 정보 (소프트웨어가 휴대폰에 깔려있어야 함)

주요 전화번호

은행카드 및 휴대폰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은행카드 차단 비상전화: 116 116
경찰 비상전화: 110

Augen auf und Tasche zu
Langfinger sind immer unterwegs.

KVB Kölner Verkehrs-Betriebe AG
Köln – Köln ist ein Gefühl.
DEHOGA NORDRHEIN
Handelsverband Nordrhein-Westfalen Aachen · Düren · Köln

눈에 띄지 않는 접근

범인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신경이 뺏겨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표나지 않게 귀중품을 훔칩니다.

밀치거나 부딪히는 수법

예를 들어 버스 승차시, 상점 입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선동꾼"이 갑자기 피해자 앞쪽에 멈춰서고 정체를 야기합니다. 실제 훔치는 자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접근합니다.

가려진 손

범인은 외투나 신문 또는 가방과 같은 물건을 활용하여 범죄순간을 은폐합니다.

범죄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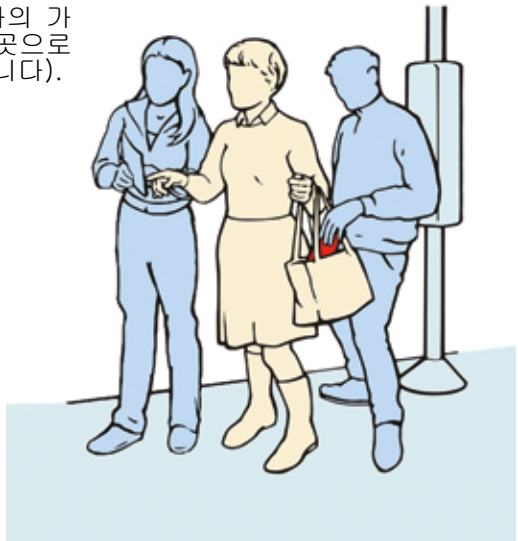
범인은 가방이 허술하게 놓여 있거나 좌석 팔걸이에 걸려있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식당, 버스)

주의분산 수법

소매치기들은 팀으로 "작업".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는 공범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귀중품을 훔쳐 제3자에게 전달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절취품을 전달받은 제 3의 인물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범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의분산 계략:

- 누군가 지도를 펼쳐 보이고 어디를 찾는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 누군가 (피해자의) 옷을 더럽혔다면서 닦도록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 누군가 잔돈을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 누군가 피해자에게 접근,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은행 고객의 동향감시

범인은 현금인출기를 감시하며 현금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범인은 이제 출금한 고객이 어디에 돈을 보관하는지 정확히 인지합니다!

Polizeipräsidium Köln – Walter-Pauli-Ring 2-6 – 51103 Köln – Tel. 0221 229-0 – koeln.polizei.nrw.de – poststelle.koeln@polizei.nrw.de
Fachverantwortung: Direktion Kriminalität – Kriminalkommissariat Kriminalprävention/Opferschutz – Tel. 0221 229-8655
© Polizeipräsidium Köln – Bildmaterial: Metropolitan Police London – Stand: 5/17